

buddhanews.com

그냥 철부지 애처럼 한군데만 믿고 편안하게 사세요

25면에서 계속

고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에도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가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 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이것저것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것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몰락 놔 버리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아, 여기에 삼살방이 들었네.' 이렇게 하나가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풀릴 수가 없다. 있다.' 하는 거를 다 제 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어든지 살리든지, 살리는 것도 너네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다 다 몰락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하! 아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박히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아무 데일 갖다 세워 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것도 다 놓고, 놓는 다기보다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유하게 사시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지 잘못했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나쁘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안 좋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좋게 살게 너만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철부지 애처럼, 아주 철딱서니 없는 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철딱서니 없는 애가 뭐 뛰어가는데 자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낭떠러지 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 그렇게 뛰어가니까 어른이 딱 잡죠. 어른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는데,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런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 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운통 모두 그냥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지켜 주고 이끌어 주고 해결사도 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보살도 돼 주고, 칠성 부처도 돼 주고, 주해신도 돼 주고, 주산신도 돼 주고, 어떤 거 안돼 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

거는 다 돌보지를 못하죠. 저거는 잘났다가 잘난 대로 살게 그냥 놓습니다. 그냥 철부지같이,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그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 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하고 아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뺏 뺏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여러분도 이러나저러나 분별하지 마시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종교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자꾸 기독교 쪽으로 끌어당기지만 저는 불교에 관심이 좀 있는데 불교는 약간 미신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배울 때에 이 종교다 저 종교다, 이리로 가야 하고 저리로 가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 진리

를 놓고, 소는 소를 놓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비가 바깥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빗물을 안 먹는 게 있습니까? 사람도 먹어야 하고 독사도 먹어야 하고 풀도 먹어야 하고, 하다못해 무정물도 먹어야 하고 식물도 먹어야 하고 안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투고투 다 먹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바로 약이 되듯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칼을 들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되지만, 강도가 칼을 들었을 때는 바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그 물을 먹는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사람을 해치는 독사가 먹는다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칼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그 여러 가지 칼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 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많습니 다.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면서도, 똑같은 물을 먹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찌들리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도깨비 굴에 들어가서도 도깨비하고 틀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들이 탄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 도깨비 마음과 틀어 아니게 돼 가지고 선신의 행을 하니,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능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든 안으로 열심히 정진하셔서 그 마음의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부 인연이겠지요?

☞ 저는 맛벌이를 하는 주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편도 가정일을 분담해서 잘 산다고들 하는데 저의 남편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집안일을 조금도 거들어 주지 않으니 몸보따 마음 너무 힘들습니다. 저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싶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의 공부 인연이겠지요?

☞ 지금 여러분은 물질세계에서 살아나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겠지만, 죽어도 혼백은 영원히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그런 물질세계의 차원만 봤기 때문에 영계가 생기고, 건너가지 못하는 혼백들이 떠돌면서 자기 가정에서 영 떠나질 못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 죽으면 의식만 가져갈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까지 동굴에도 들어가고, 사람으로 부부가 사는 데를 들어가야 할 텐데 그걸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짐승들이 부부가 되는 데에 그런 데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고서 그 모습을 타고 이 세상에 나오면 그 모습대로 행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행동을 합니다. 어떤 때 누가 '아이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러죠?' 그러면 '애,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모습을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 행동을 해야지 그럼 어떡하니?' 내가 그러합니다. 태어났으니 어떡합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행을 해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행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지금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 분수를 보지 않고, 자기 차원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맞서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숭배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부드럽게 하고, 못났든 잘났든 그 마음이 진정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다복할 겁니까? 그리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엇갈리고 서로를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이 의식을 놓아라 이 소리죠. 안되는 거는 '잘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병이 나도 거기서밖에 고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또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이렇게 반박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말길 것도 없고, 말길지 않을 것도 없고 말길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냥 살아나가는 게 아주 그대로 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현재의 그 몸품이만 알고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자,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전생을 찾아야 진짜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전생이 지금 후생의 자기 몸뚱이를 이끌고 가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어떡하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그 자비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전생이거든요.

우리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좀더 믿음을 갖고 자기 근본, 전생의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겨놔 버리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는데 옆에서 누가 싸운다,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급하게 달려가지 거기 참성하느라 가던 길을 멈추겠어요?

는 탐구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주처는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근본이 거기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천大千세계의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고, 천지의 근본도 마음 근본에 있고, 태양의 근본도 마음 근본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살림살이 가설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느니라. 그러니 네 마음 하나만 물리가 타진다면 삼라만상大千세계의 모든 유(有)의 세계, 무(無)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바로 통달하리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 국한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불교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의 마음 차원을 가지고 죽어 보십시오. 그 의식이 그냥 있어서 그 의식대로의 또 인연을 맺어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합니다. 그래서 독사는 독사를 낳고, 사람은 사람

고, 물 한 그릇을 먹어서도 선의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약이 돼서 남까지도 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을 잘 뒤아서 도살장에 가는 소가 있다면 '애! 너 아프지 말고 웃을 벗고 오 다음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고 나질 말아라.' 한다면 급방 그 죽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영과 영이 틀어 한데 합친다고 해서 두드러질 일이 없습니 다. 안 그럴까요? 내가 물방울이러면 물방울을 거기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한 그릇이 아닙니까? 이 물 그릇에 이 물방울을 여기 넣으면 한 그릇입니다. 그냥 그렇듯이 어떠한 짐승이라도 우리가 먹을 때 '애! 네 생명이 내 생명이고, 네 모습이 내 모습이고, 네 살이 내 살이고 그러니까 틀어 아니 다.' 할 때에 그 의식이 건져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다가도 '틀어 아님네' 하면 그건 없어집니다. '너하고 나하고 틀어 아님네' 할 때에 인과로서, 업으로서 나한테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계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의식' 이고 '환상'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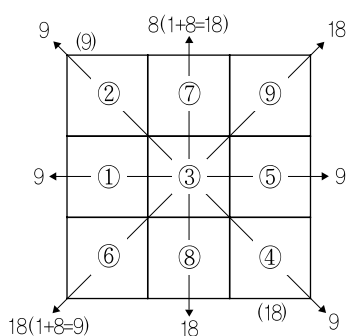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차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나갈 때의 그 의식을 죽여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물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불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런 게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재야재 바라야재 바라야재' 불가에서는 '건너가세, 건너가세.' 이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해도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 건너갈 수가 없죠. 물질세계로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이 내가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을 못 건너 가지, 불바퀴 속을 못 건너가지, 모든 마구니 있는 데를 못 건너가지, 독사들 있는 데를 못 건너가는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 책임10일 완성 ★
저자 : 법화(정흥교)크스님 직강!



[구단구궁원리도]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흉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등 다양한 명운을 주저없이 판단 미래 예측함

개강 : 목, 금요일반 (오후2시~5시)
토, 일요일반 (오후1시~5시)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호상빌딩
(051)467-4665 010-7725-1024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6-9506-5706

당뇨. 비만 Diet

임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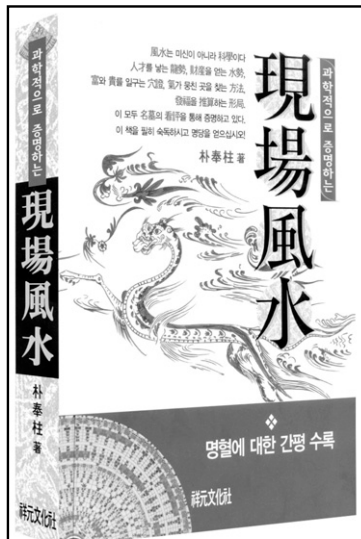
한솔한의원
031)555-7780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에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천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실혈 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음택론, 각종 사법론, 현장총론 등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같이 다루었다.



- 제1장 심혈 순서
- 제2장 음양오행론
- 제3장 나경총론
- 제4장 음택론
- 제5장 각종 사법론
- 제6장 혈장총론
- 제7장 수법론
- 제8장 발복추산법
- 제9장 본신통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 著

신국양정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